

핵심주제

- 2019동방경제 포럼 공식일정구조 공개
- '극동의 거리' 전시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3-8일간 진행
- 가스프롬, 루스키섬에 프로젝트 연구 R&D센터 설립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7월 30일, Regnum

야쿠티아에서 동방경제포럼 출장세션 진행

행사에 연방부처, 극동지역정부, 사업계 및 국제 금융, 컨설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발전은행들이 극동지역에 용자를 제공하는 방안,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프로젝트 추진 전망을 논의하였다.

출장세션의 핵심 행사는 '러시아 극동 발전에 있어 국제금융기관들의 기여'를 주제로 한 페널세션이었다.

<https://regnum.ru/news/economy/2675979.html>

2019년 7월 26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극동의 거리' 전시회 진행

전시회에서 극동 11개 지역들의 특징들, 경제 잠재력, 관광사업 기회 및 문화, 전통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참가 지역들은 추진된 및 계획된 투자프로젝트도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에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거 극동연방관구로 편입된 부랴티야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경주가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9월 3-6일에는 전시회에 동방경제포럼 참가자 및 방문객들이 출입 가능하며 9월 7일은 다자녀 가정, 노인, 참전용사 및 청년단체 관계자들을 위한 사회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9월 8일은 모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다.

<https://ria.ru/20190726/1556895597.html>

2019년 7월 25일, TASS

'건강한 사회' 행사 최초로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건강한 사회'는 동방경제포럼을 찾는 의료 및 학계 커뮤니티의 집합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동방경제포럼의 보건분야 논의들은 외딴지역 의료서비스, 보건 신기술 도입, 생물학적 안보, 극동 공공보건 프로그램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https://tass.ru/novosti-partnerov/6700504>

2019년 7월 16일, RIA News, TASS, Komsomolskaya Pravda, Forbes, Vesti.ru, Rossiskaya Gazeta, Izvestiya, Lenta.ru

2019동방경제포럼 공식일정구조 공개

동방경제포럼의 공식일정은 경제발전 가속화, 극동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사업 환경 조성, 아태지역 내 협력을 다루는 주제블록들로 구성된다.

또한 공식 일정 프로그램에 국가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포함된다: 러시아 – 중국, 러시아 – 일본, 러시아 – 인도, 러시아 – 아세안, 러시아 – 한국.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중언론포럼, 러시아-싱가포르 정부간 고위급 회담,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아우르는 공동경제공간'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2019년 7월 8일, RT

모스크바에서 인도 총리 동방경제포럼 방문 준비 논의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과 바르마 주러 인도 대사가 인도 대표단의 제5회 동방경제포럼 방문 준비 현황을 논의하였다. 대사에 의하면 "올해 포럼 행사에 모디 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인도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인도 경제, 산업, 관광 및 문화 잠재력 홍보를 위해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 인도 홍보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https://russian.rt.com/world/news/648252-forum-rossiya-indiya>

극동 국가정책

2019년 7월 19일, Forbes

북극, 극동 천연자원개발권 취득 간소화

사업리스크를 안고가는 조건으로 지질탐사를 위한 토지허가 제공에 있어 신고제가 극동과 북극의 P1, P2 카테고리 고체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크루티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에 의하면 "이는 지질탐사 및 산지 예비탐사에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 정책을 통해 이러한 투자가 연간 20-30퍼센트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https://www.forbes.ru/forbes-agenda/vostochnyy-ekonomicheskij-forum-2019/380345-poluchit>

2019년 7월 3일, TASS

금리 연2% 주택대출, 극동에 연말 전에 도입

코즐로프 장관이 극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시행 시기를 설정하였다. 주택 매입, 수리, 건설을 목적으로 대출을 연2%로 최대 20년 기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선금이 필요없다.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150억 루블 가량이 투입된다.

<https://tass.ru/nedvizhimost/6624733>

극동 경제

2019년 7월 26일, Interfax

중국 투자자, 연해주에 신규 목재가공공장 가동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인 '준다 목재가공사'가 우수리스크에 OSB 판넬과 합판 공장을 가동하였다. 공장은 합판라인, 수리소, 물류동, 목재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총 규모는 1억 5450만 루블이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목재가공공장은 내수시장을 목표로 활동하며 연해주와 극동 기타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매년 35000제곱미터의 OSB 판넬, 거푸집, 합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1050196>

극동발전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9년 7월 4일, Interfax

루스키섬에 대륙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가스프롬 R&D센터 개소

새 연구소는 해저 탄화수소 채굴 및 천연가스 액화와 관련된 과학연구 및 실험제작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R&D센터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3차 LNG공장,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중형 LNG 공장 건설 및 키린스키, 유즈노키린스키 석유가스콘덴세이트 산지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가스프롬 연구부서를 루스키섬에 신설하라는 지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4회 동방경제포럼의 결과에 따라 내렸다.

<https://academia.interfax.ru/ru/news/articles/3189>